

'아리수' 초가을 사과시장 선점

국산사과 새로운 강자 부상 올해 40톤 유통... 소비자 입맛 사로잡아

초가를 사과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색이 곱고 맛도 좋은 국산 사과 '아리수'가 올해 본격 출하된다. 농촌진흥청은 국산 사과 '아리수' 품종 약 40톤이 올해 백화점과 대형 마트로 본격 유통되며 우리 품종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초가를 사과는 8월 하순이 정상 숙기인 '쓰가루'가 있지만 저장성이 매우 약해서 8월 중순이면 유통이 끝나 버린다. 그 후 9월 초순엔 납부지역을 중심으로 '홍로'가 유통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아리수' 품종이 유통된다면 8월 하순부터 소비자는 다양한 사과를 맛볼 수 있게 된다.

'아리수'는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에 익는 품종으로 기온이 높은 남부 지역에서도 색깔이 잘 드는 이른 추석용 품종으로 개발됐다.

또한 이 시기에 출하되는 다른 사과에 비해 당산비(당도 15.9브릭스, 적정산도 0.43%)가 적당하고 식감이 좋고 맛이 우수하며 저장성도 좋다. 과일 무게는 285g 정도의 종파이고 껍질에 줄무늬가 없이 골고루 붉은색으로 착색된다.

특히 다른 사과보다 탄저병과 갈색 무늬병에 강하고 낙과가 없어 재배 농가가 선호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농가에 모둠이 보급돼 현재 150ha가 재배되고 있으며 지난해 적은 양이지만 시장에 첫 선을 보였으며 올해 본격 유통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새 품종의 시장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매시장 종사자에게 '아리수'를 소개하는 시식 홍보행사를 지난 24일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었다.

도매시장 종사자들은 '아리수'는 당

도도 높고 과일 모양이 예쁘며 특히 착색이 우수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새콤달콤한 맛이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아리수' 품종 출하는 생산 농가를 조직화해 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서 동일 기준으로 선별해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이명숙 기술지원과장은 "올해 본격 유통되는 사과 '아리수'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 소비자가 많이 찾는 품종으로 만들겠다"며, "신종 품종이라도 품질과 가치를 인정받아 우리 품종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새농민회는 28일 '전북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우수회원 등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 등을 수여했다.

전북 새농민회 '한마음 한뜻' 다짐

550여명 참석 전진대회 성료... 농업 경쟁력 강화 최선

전북새농민회는 28일 임실군 군민회관에서 송하진 지사와 황현 도의장, 이성희 한국새농민 회장, 강태호 전북농협 본부장, 심민 임실군수 등 5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새농민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북 새농민회는 임실군에 사람의 쌀 300포(10KG) 전달과 함께 우수회원 등에게 표창장 및 감사패 등을 수여했고 기념식 후에는 '농산물 시장 개방시대에 전북 농업의 나아갈 길'이라는 주제로 노

정기 강사의 초청강연과 시군별 민속경기, 장기자랑 등의 화합의 어울림 한마당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새농민회 회원들은 상호간 다양한 영농경험과 정보교류는 물론 회원들에게 우리 농업의 소중함을 알리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우리 농업이 전북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새농민 회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강소기업 지원책 '가뭇속 단비' 역할 특출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

성장기반 구축 '디딤돌'

혜택받은 업체 고소성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이 지역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소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에 따르면 군산시에 소재한 (주)다윈은 최근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뒤 고소 성장기도를 달리고 있다.

(주)다윈은 라면조리기를 개발해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지난 2010년 7월 설립됐다.

다윈의 라면조리기가 설치된 곳이라면 소비자는 별도의 준비 없이 손쉽게 라면을 섭취할 수 있다. 긍정적인 시장 반응에 따라 라면조리기를 설치

한 편의점 수가 1000점포를 넘어섰고 구내식당, 휴게소, PC방, 당구장 등 설치 장소도 다양해지고 있다.

창업 초기 다윈은 운영자금 조달의 난항으로 몇 차례 위기를 맞았다.

라면조리기를 무료로 대여하고 특수 일회용 용기의 판매를 통해 이윤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에서, 자금 확보 여부는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주)다윈의 대표이사 이상철은 이미 한 번의 사업을 실패한 재창업자로 은행권의 대출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중진공의 연계 지원책은 (주)다윈의 성장 사다리가 됐고 가뭇속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진공으로부터 인정받고 정책자금을 무담보로 대출받아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운전자금 용도로 활용했다.

이는 입점 편의점 수 1000점포 돌파

의 쾌거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올해 수출마케팅 사업 지원사업으로 선정돼 수출마케팅 분야에서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으며,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원 복지 정책으로 활용해 회사 내 건강한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일본의 무인점포에서 사업의 영감을 받은 (주)다윈은 올해 일본 편의점으로의 역수출을 앞두는 등 성장에 계속되고 있다.

아울러, (주)다윈은 기존 제품의 단점을 보완한 3세대 라면조리기 출시 등 시장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다.

중진공 전북서부지부 신기철 지부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인재용 기자

찾아가는 취업상담실 운영

경진원, 특성화고교 대상

전북도와 전북경제중흥추진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도내 소외 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취업상담실은 1년에 2개의 특성화고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총 3회씩 진행하는 현장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로 올해에는 남원용성고등학교(25일·30일·9월9일)와 김제만경여자고등학교(9월11~13일)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청소년직업준비실시실 등을 통한 개인별 직업선택도 상담 파악 및 진로탐색, 실질적인 도내 기업 구인정보 확인, 이력서·자기소개서 컨설팅 등 취업과 관련된 뻘한 이야기를 아닌 편(fun)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남원용성고등학교 홍순철교사는 "정량화 돼 있는 학교 내 취업상담을 벗어나 도내 취업정보 확인 및 전반적인 취업동향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상담이 진행될 것 같아 아이들의 진로발달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경진원은 취업상담실이 진행될 이후에도 참여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로 맞춤형 진로상담 및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인재용 기자

중장년·청년 힘 모은다

중기청, 세대융합 창업팀 발굴

선정 시 최대 3000만원 지원

기술·경험·네트워크를 보유한 고경력 퇴직인력과 청년의 아이디어, 기술을 매칭해 역량있는 창업팀을 육성하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가 (예비)창업팀 발굴에 나선다.

전북중소벤처기업청은 우수한 창업 인프라와 지원역량을 갖춘 세대융합 창업캠퍼스(6개소)를 선정 중이며 이와 더불어 중·장년·청년 세대융합팀을

모집해 지원한다.

이번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예비)창업팀 모집에서는 협업 파트너를 찾아 창업팀을 구성한 팀빌딩대표형과 협업 파트너를 찾고있는 팀빌딩희망형으로 구분해 총 120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된 창업팀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크 등의 초기창업 전단계 집중 지원받게 되며, 우수창업팀에게는 후속투자과 글로벌 진출지원, 최대 3000만원의 후속

창업자금이 지원 된다.

이번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기술자들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통해 중·장년층과 청년층간의 융합형 기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에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팀은 오는 10월 10일(화) 오후 5시 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인재용 기자



국토정보공사는 한국잡월드와 손잡고 28일 청소년 직업체험관인 '국토정보센터'를 개관하고 오는 31일부터 정식 오픈한다.

직업체험관 '국토정보센터' 문 활짝

LX공사, 31일 정식 오픈

체험프로그램 구비 다채

올해 초 정부로부터 고객중심경영(CCM)인증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청소년 진로선택의 등대 역할을 지체한다. 국토정보공사는 한국잡월드와 손잡고 28일 청소년 직업체험관인 '국토정보센터'를 개관하고 오는 31일부터 정식 오픈한다.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잡월드 3층

에 위치한 체험관은 지적측량과 3차원 입체측량, 드론을 활용한 3차원 모델링, 재해복구 시뮬레이션 실습 등 공간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구비돼 있다.

박명식 사장은 "국토정보센터는 자유허기제를 활용해 청소년들과 함께 국가공간정보의 미래를 공유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공간"이라며 "꿈나무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정부교육정책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www.ijnh.co.kr

조합원님!! 자식 같은 농산물 모두 팔아주는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신축으로 전주시 통합마케팅 시스템 구축 로컬푸드직매장 10곳 개소로 영세농업인 소득향상

복숭아

호박

마늘

배

장미

조합장 임인규

상임이사 (신용)오태식
상임이사 (경제)나병훈

이사 김대진, 김양순, 김종표, 김태영, 김형수, 송재규, 신동선, 오남석, 유석용, 이상현, 이성광, 주동현

사외이사 김병윤, 이희열

감사 정무성, 조미희

전주농협 산지유통센터

전주농협업동조합